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의 관계분석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력 증진을 위한 연구*

A Simultaneous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Productivity and Market Productivity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 교수 정 순 희
부 교수 최 혜 경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Associate prof. : Jung, Soon-Hee
Associate prof. : Choi, Hae-Ky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productivity and market productivity of the married men in their early adulthood. Proxy variables of the household productivity were housework time,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and family economic resource. Also proxy variables of the market productivity were job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wag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en's housework time is insignificantly related to men's job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wage. But men's housework time is reduced as men's wage.

Second,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related to the married men's job performance. The married men's job performance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related to the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And the married men's wage goes up as the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 본 연구는 1998년도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 지원 과제임.

Third, family economic resource a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related to the married men's job performance, and wage goes up as the family economic resources.

I. 서론

한국경제는 97년 12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체제가 되면서 커다란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소위 국가적 부도사태를 초래하여 온 국민이 경제난에 시달렸으며, 특히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일차적 의무로 여겨왔던 가장(대부분이 남성)의 실직은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복합적인 갈등과 해체현상을 야기했다. 그러나 역할분담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부가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비전통적인 역할 기대를 가지는 경우 실직 기간동안 가족적응이 보다 바람직하게 이루어졌으며 보다 강한 재취업의지와 동기를 갖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Liem & Liem, 1988). 즉, 가정생산성이 높을 때, 개인은 실직이나 고용불안정성의 위기상황을 오히려 더 나은 시장생산성을 이루기 위한 준비기간 또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적절한 가정내 역할분담 등 추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취업여성의 이중부담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성별분업관념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취업주부에게 주어진 가정노동과 시장노동의 이중부담은 가정내 생산의 양과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주부가 시장작업에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노동량감소를 가져와 시장생산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개선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시장생산성은 주부에 의한 전적인 가사노동수행이라는 관행에 경제적 당위성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주부의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성성과 여성성 역할에 관한 의식개혁, 가정생산성 증가를 통한 여성의 시장생산성 증가 등 이들의 이중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직장과 가정의 두 영역은 서로에 의해 영향을 받

는 상호의존적인 영역이다. 시장노동과 가족생활간의 전이에 관한 연구들은 직장과 가정의 두 영역은 독립적이지 않고, 한 영역에서의 사건은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Jones & Fletcher, 1993). 그러나 직장과 가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두 영역간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을 언급한 채 직업경력에 기초해온 남성의 정체감, 가족내 역할에의 참여정도, 가족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가 남성과 여성의 직업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던가 아니면 역으로 직장스트레스나 직장에서의 성공여부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등 일방적인 측면에서만 직장과 가정관계가 파악되어 왔을 뿐이다(이숙현, 1995; Bolger, DeLongis, Kessler & Wethington, 1989).

특히, 20-40세의 기혼남성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면서 또한 동시에 가족생활에서도 결혼 및 출산이라는 역할전이를 경험하는 다중역할의 어려움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그들의 시장생산성과 가정생산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직장과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중역할의 어려움을 탐색하는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으며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남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해왔던 이유 중 하나는 직장과 가족간 경계의 허용성에 있어 남녀차이가 존재하여 남성은 직장일 때문에 가족생활이 영향을 받고 희생되는 것이 당연시되어, 여성과 달리 별다른 갈등없이 마치 가족역할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직업역할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직장과 가정의 두 영역이 따로따로 조명되어서는 가족을 이루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가족의 총체적 삶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100위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는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시장생산성이 가

정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가정생산성이 시장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높은 시장생산성은 직업안정성과 관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산성의 여러 가지 대응변수에 영향을 주고, 또한 가정생산성은 재취업 의지와 연결되며 새로운 역할에의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시장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상호역동적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들간의 관계규명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간 서로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자원의 최적분배와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의 재분배 방안을 고안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업이나 기타 이유로 정체감을 상실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 및 동기 부여를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랜 미해결 과제인 취업주부의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모색에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가족전체의 안정성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 가정생산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 영역인 가정과 시장에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가정상황하에서의 특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하며, 역할전이모델,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관계, 고용불안정성 및 실직, 가족기업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도구적 생산성(가사노동시간), 정서적 생산성(가족의 응집성·적응성), 경제적 생산성(가족의 경제적 자원)의 세가지로 구성하였다.

또한, 시장생산성은 직장이라는 단독 영역에만 작용하는 변수가 아니라 시장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임을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두가지 활동영역인 시장과 가정에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시장상황하에서의 특

성들”을 의미하며, 도구적 생산성(직무수행도), 정서적 생산성(직무만족도), 경제적 생산성(임금율)의 세가지로 측정되었다.

한 개인의 직장생활은 그 사람의 다른 생활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경험은 조직 외부의 삶에 영향을 주며, 또한 가정을 비롯한 직장 외부 영역에서의 경험이 조직내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과 가정의 두 영역은 역동적, 상호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이기영 외, 1998).

그러나 시장과 가정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직업경력에 기초해온 남성의 정체감, 가족내 역할에의 참여정도, 가족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가 남성과 여성의 직업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던가 아니면 역으로 직장스트레스나 직장에서의 성공여부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등 일방적인 측면(이숙현, 1995; Bolger, DeLongis, Kessler & Wethington, 1989)에서만 이루어졌고, 가족의 역할분담, 정서적 생산성 및 가족의 경제적 자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가정생산성과 직무수행도, 직무만족도, 임금률을 포함한 시장생산성이 서로에게 미치는 양방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은 간과되어져 왔다.

먼저 시장생산성이 가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직무수행도나 임금률이 가사노동분담에 미치는 영향이나 직무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되어 왔다.

이현아(1994)는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경제적 자원, 시간공간적 제약, 심리적 영향 등 3가지 차원으로 살펴보았다. 즉, 직장노동생활은 가계수입의 근원이 되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양을 결정하고, 직장노동시간은 가정내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의 양을 규제하는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남편의 직장근무시간이 길수록 가정내에서 소비하는 시간, 특히 가사노동시간이 짧아질뿐더러, 남편의 장시간 노동 또는 직업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지나친 몰입은 가정생활전반에 있어서 장애와 갈등을 유발하였다. 그 외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이나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연구들(Kamo, 1988)에서도 남편의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참여

정도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성별분업구조 하에서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시장생산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남성의 직업역할 뿐만 아니라 가족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남성의 아버지역할 참여나 가족 및 직업 다중역할수행에 대한 연구(이숙현, 1995; 한경혜, 1995)가 수행되었다.

김양호·김태현(1998)의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의 남편은 직장에서 장시간 근무할수록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있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혼남성의 직장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이 가정생활만족에 부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하현숙·김득성(1996), 최규련(1993), Voydanoff(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낮은 직무수행도는 직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로인한 피로의 생산은 가족생활과 활동의 공유를 방해함으로써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현, 1995).

Ferber & Birnbaum(1982)은 직무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고정자(1998)의 연구에서 남편의 직무만족도는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장임금률은 부부의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자원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Ferree(1990)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평균소득은 남성의 70%에도 못 미치는 때문에, 남성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임금률이 그들의 가사참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Coverman, 1985). 특히, 불안정 취업으로 인해 부인의 임금률이 지극히 낮은 경우, 남편의 가사참여는 매우 낮았다(현정혜·박혜인, 1992). 그러나 반대로 부인의 임금률이 증가해도 남편의 가사참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Ferree, 1990) 혹은 남편의 가사참여가 증가한다는(Bird et al, 1984) 연구도 있다.

한편, 가정생산성이 시장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주로 여성의 가사노동책임이 시장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혹은 실직 등의 경제적 위기에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 재취업동기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구되어왔다.

지금까지 가사노동이 구성원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Coverman(1985)의 연구는 가사노동시간과 주당임금간의 관계를 조사한 전형적인 예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경우에 가사노동이 주당 벌어들이는 임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마찬가지로, Hersch(1991)도 남편의 임금률과 가사노동시간간의 부적인 관계를 발견했다.

Wilkenfield(1988)는 응집성·적응성이 강한 가정에서 부부는 가족원의 요구나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실직 등의 경제적 위기에 저항력을 갖출 수 있고, 가족원의 재취업의지 향상 등을 통해 시장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혜정(1985)의 연구에 의하면, 아내의 지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혼남성의 직무수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가족원들에게 직업역할 수행의 동기를 부여하며, 가족원의 목표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내 긴장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조절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양희 외, 1992).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은 남성의 시장생산성으로 인해 가정생산성이 영향을 받는 동시에 가정생산성이 시장생산성에 영향을 줄을 나타냄으로써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관련변수의 고찰

1) 가정생산성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정생산성을 구성하는 가사노동시간,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가족의 경제적 자원의 세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겠다.

(1)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으며, 자녀수, 막내자녀 연령, 교육수준, 남성의 연령, 가족유형, 부인의 취업 여부 등이 포함된다.

Walker & Woods(1976)는 자녀수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Blair & Lichter(1991), 박주희(1993)의 연구에서는 막내자녀가 어릴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Padgett, 1991), 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였다(이기영 외, 1998; Coverman, 1985).

또한 가사노동조력자는 부인과 남편 모두에게 부과되는 가사노동요구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부인 뿐 아니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박주희, 1993), 핵가족인 경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이정우 · 이미선, 1995). 주부의 취업여부는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Coverman, 1985)이나,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이 부인의 취업여부와 무관하다는 상반된 연구결과(이기영 외, 1998)도 있다.

이 외에도 남성의 취업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Padgett, 1991; 박주희, 1993), 남성의 직업유형이 전문관리직일수록(Voydanoff, 1988)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의 응집성 · 적응성

가족의 응집성 · 적응성은 자녀수, 가족유형, 막내자녀연령, 교육수준, 남성의 연령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자녀수와 가족유형은 가족의 응집성 · 적응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녀가 1-2명인 가족이 3명인 가족보다,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가족의 응집성 · 적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우 · 이미선, 1995; 고정자, 1994). 특히 막내자녀연령이 13-18세일 때 가족의 응집성 · 적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의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의 응집성 · 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고정자, 1994; 계선자 외, 1997). Olson(1983)의 연구에서는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가족

의 응집성 · 적응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년기에 가장 낮았다.

그 외에 남성의 직장근무시간이 짧을수록(한경혜, 1995), 남성의 직업유형이 관리전문직일수록(고정자, 1994) 가족의 응집성 · 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3) 가족의 경제적 자원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남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는데(Johnson & Widdows, 1985; 김경자, 1998), Hanna, Chang, Fan & Bae(199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계가 25세 미만인 가계보다 경제적 자원 보유율이 약 3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김경자, 1998),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재정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옥, 1996).

또한, 주부의 취업은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자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양정선, 1992), 가구주 직업이 전문직 · 관리직일수록, 그리고 가구주의 직장내 직위가 높을수록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증가했다(배미경 · 박선영 · 이승신, 1997).

2) 시장생산성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시장생산성을 구성하는 직무수행도, 직무만족도, 임금률의 세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 보겠다.

(1) 직무수행도

직무수행도에 관해서는 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왔는데, 이숙현(1995)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있어서 직장과 가정은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비교적 직무수행도가 높았다.

하현숙 · 김득성(1996)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일에 대한 경험이 증가하여 직무수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혜(1995)의 연구에서는 업무량이 많을수록, 직장내 직위가 낮을수록 남성의 직무수행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유형이나 근무시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외에 직무안정성과 직무유동성도 남편의 직무수행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수가 많은 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성의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부인이 취업한 경우 남성의 직무수행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Voydanoff, 1988; 김수연·김득성, 1993).

(2) 직무만족도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직무만족도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에 대한 보상(임금, 직위 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직무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gionne과 Peeters(1982)는 연령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는 남성에게는 곡선 커브가 적합하고, 여성에게는 직선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결혼한 근로자가 이혼, 별거, 사별, 결혼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Osherson과 Dill(1983)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업의 유형, 직장내 직위, 근무시간이었는데, 직장내 직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남성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졌다. 이 외에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동료·상사·고객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졌으며(Mason, 1995), 최근의 연구들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의 특성보다는 개인적인 기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Judge 외, 1998).

(3) 임금률

임금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Hersch(1991)는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더 높은 임금률을 가짐을 보고했으며, 남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에 대한 경험과 근속년수가 증가함으로써 더 높은 임금을 획득하고 있었다. 특히 연령과 임금간에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여 일정 연령까지는 소득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유형을 보인다는 것이 지적되었다(Brown, 1989).

또한, 남성의 직업유형이 관리전문직인 경우, 직장직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임금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rsch, 199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남성의 시장임금률에는 남성의 교육수준, 연령, 직업유형, 근무

시간, 직장직위, 근속년수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는 우리나라 100위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는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시장생산성이 가정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가정생산성이 시장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간의 상호역동적인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00위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혼남성의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혼남성의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에는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기혼남성의 경우 가정생산성이 시장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시장생산성이 가정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대상의 선정 및 척도

본 연구의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 우리나라 100위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20-40세의 사무직 종사자들 중 기혼남성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1999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45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중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총 375부의 설문지 자료를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으로 사용하였다.

기혼남성의 가정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조사시점전 1주일 동안 식사준비, 청소, 장보기, 세탁, 자녀돌보기 등에 투입한 총 가사노동시간을 주관적으로 회상해서 기록·측정하였으며,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가정의 모든 수입(임금 외의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포함)을 합한 한달

평균 총수입으로 측정되었다.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은 Vaux(1983)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22문항(22점~110점)의 측정도구가 완성되었으며, 도구의 Cronbach α 는 0.92였다. 이 문항들은 '전혀 하지 않는다(1)에서 항상한다(5)'의 응답범주를 갖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혼남성의 시장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남성의 직무수행도는 신창식(1996)이 사용한 직무성과 문항과 모기업에서 제작한 팀업적 기여평가지를 수정하여 총 24문항(24점~120점)으로 측정되었고 Cronbach α 는 .89였다. 직무만족도는 직무만족요인들을 총정리한 이종목(1989)의 연구를 중심으로 요인들을 골라, 총 12문항으로 제작하였는데(12점~60점), 도구 Cronbach α 는 0.92였다. 문항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응답범주를 갖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도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모형 및 자료분석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간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시간-직무수행도체계, 가사노동시간-직무만족도체계, 가사노동시간-임금률체계,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직무수행도체계,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직무만족도체계,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임금률체계, 가족의 경제적 자원-직무수행도체계, 가족의 경제적 자원-직무만족도체계, 가족의 경제적 자원-임금률체계라는 연립방정식이 구성·측정되었다. 이중 임금률은 특성상 어떤 영향요인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지만 그 증가폭이나 감소폭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의 로그가 사용되었다(Brown, 1989).

또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시간,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가족의 경제적 자원, 직무수행도, 직무만족도, 임금률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독립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코딩방법은 <표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코딩방법

변 수	조작적 정의 및 코딩방법
가사노동시간	조사시점전 1주일 동안 식사준비, 청소, 장보기, 세탁, 자녀 돌보기 등에 투입한 총 가사노동시간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부부간의 사회적 지지정도
가족의 경제적 자원	가정의 모든 수입(임금 외의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포함)을 합한 한달 평균 수입
직무수행도	기혼남성의 직장에서의 직무수행정도
직무만족도	기혼남성의 직장에서의 직무만족정도
임금률	시장노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시간당 임금의 자연로그
기혼남성의 연령	실제 기혼남성의 연령
기혼남성의 교육수준	1=무학 2=국졸 3=중졸 4=고졸 5=전문대졸 6=대졸 7=대학원 이상
가족유형	1=핵가족 2=확대가족
부인의 취업여부	1=취업 0=비취업
직장직위	1=계장이하 2=과장이상
막내자녀연령	표본 가족내 막내자녀의 실제 연령
자녀수	표본 가족내 실제 총자녀의 수
기혼남성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조사시점전 1주일 동안 투입한 총 근무시간
근속년수	기혼남성이 현재의 직장에서 근속한 년수

1)에 제시되어있다. 이러한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간의 관계 및 영향변수들을 규명하기 위해 2 stage least squares(2SLS) 분석이 사용되었으며, SPSS WIN(8.0)을 이용하여 설문지 조사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정의 특성을 <표 2>에 요약하였다. 조사대상인 375 가정의 기혼남성의 평균 연령은 34.3세였고, 이 중 대졸이 76.3%, 대학원 이상이 23.5%로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냈다. 조사대상자 가정의 가

족유형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업주부가계(63.2%)가 취업주부가계(36%)보다 더 많았다. 또한 기혼남성의 직장내 직위는 계장이하가 절반 이상(57.9%)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가정의 막내자녀연령은 평균 3.42세였으며, 평균 자녀수는 약 1명이었다. 기혼남성의 주당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7시간 41분이었으며,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은 척도의 중앙값인 66점을 상회하는 76.6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혼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1,849,400원이었으며, 임금 외의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가정의 경제적 자원은 2,416,3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에서의 직무수행도는 척도의 중앙값인 72점보다 낮은 67.06점이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 주 변 수		N	%
기혼남성의 연령	20세~25세	1	0.3
	26세~30세	42	11.2
	31세~35세	183	48.8
	36세~40세	149	39.7
기혼남성의 교육수준	대졸	286	76.4
	대학원 이상	88	23.6
가족유형	핵가족	315	84
	확대가족	60	16
부인의 취업여부	유	135	36.8
	무	237	63.2
직장직위	계장이하	217	60.6
	과장이상	141	39.4
연 속 변 수		Mean	S.D.
막내자녀연령		3.42세	2.49
자녀수		1.29명	0.72
기혼남성의 주당 평균 가사노동시간		7시간 41분	427.71분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76.67	12.35
가족의 경제적 자원		2,416,300원	1,025,600원
직무수행도		67.06	16.51
직무만족도		35.40	5.75
기혼남성의 월평균 소득		1,849,400원	576,200원
기혼남성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61시간 13분	432.14분
근속연수		6년 1개월	40.55개월

었고, 직무만족도는 척도의 중앙값인 36점보다 약간 낮은 35.40점으로 나타났다.

2. 2SLS 분석결과

포함된 모든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산출해 본 결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3〉 참고).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제안했던 모든 변수들이 동시적 분석에 포함되어졌으며, 본 연구의 동시적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분석 결과는 〈표 4〉~〈표 8〉에 나타나 있다.

1) 가사노동시간과 시장생산성 세가지 구성요소간의 동시적 관계분석

먼저 가정생산성 변수인 가사노동시간을 놓고, 직무수행도, 직무만족도 및 시장임금률을 시장생산성 변수라 하여 각 변수간 관계를 동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사노동시간과 직무수행도, 가사노동시간과

직무만족도는 서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성의 시장임금률은 가사노동 투입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시장임금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우리나라의 성별분업 상황에서 여성에게는 가사노동이, 그리고 남성에게는 시장노동이 우선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핵심역할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혼남성의 높은 시장임금률은 가족 의사결정에서 권력을 주어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투입시간에 따라 시장임금률이 변화한

반면, 시장임금률은 가사노동 투입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정순희·문숙재(1996)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와 타 연구에서 사용된 시장생산성의 조작적 정의와 가사노동의 단위 및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자들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표 3〉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가사노동시간														
2.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06													
3. 가족의 경제적 자원	-.04	.02												
4. 직무수행도	.07	.10	-.06											
5. 직무만족도	.06	-.01	.02	.25**										
6. 임금률	-.02	-.09	.47**	-.23**	.01									
7. 남편연령	-.22*	-.09	.25**	-.11*	-.26*	.44**								
8. 막내자녀연령	-.26**	-.21*	.03	-.18*	-.16	.15	.46**							
9. 자녀수	-.01	-.17**	.16**	-.07	-.02	.38**	.42**	.04						
10. 부인의 취업여부	-.28*	.09	.45**	.08	.06	-.09	-.12*	.02	-.13*					
11. 직장직위	-.04	-.09	.15	-.10	-.03	.41**	.42**	.23**	.41**	-.09				
12. 주당 평균 근무시간	-.01	-.04	.05	-.08	.12*	.07	.06	.07	.08	-.01	.11**			
13. 근속년수	-.06	-.12	.17**	-.17**	-.03	.33**	.48**	.36**	.46**	-.07	.44**	.15**		
14. 가족유형	-.03	-.01	.06	-.02	.01	-.01	-.04	-.04	.02	.09	.07	.11*	-.11*	
평 균	461분	76.7	24,16,300	67.1	35.4	1,849,400	34.3세	3.4세	1.3명	+	+	3673분	73개월	1.2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 가변수화한 변수임

〈표 4〉 가사노동시간과 임금률 방정식의 2SLS 추정치

종속변수 독립변수	가사노동시간	임금률의 로그
임금률의 로그	-27.04(4.55) *	
기혼남성의 연령	7.80(19.13)	
막내자녀연령	-53.05(20.40) *	
부인의 취업여부	75.06(2.81) *	
가사노동시간		-0.01(0.0001)
기혼남성의 연령		0.11(0.01) *
직장직위		0.19(0.06) **
근속년수		0.001(0.0001)
INTERCEPT	499.31(233.47) *	5.01(0.46) ***
R ²	0.07	0.10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표 4〉),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확대가족일수록 감소하였는데, 이는 확대가족을 통한 부모의 도움으로 남편의 가사참여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막내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취업주부가게일수록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박주희(1993), Coverman(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들 연구들은 또한 주부의 취업여부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기혼남성의 시장임금률은 기혼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장직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기혼남성임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기혼남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에 대한 경험과 근속년수가 증가함으로써 더 높은 임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Brown(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2) 가족의 응집성·적응성과 시장생산성 세가지 구성요소간의 동시적 관계분석
두 번째로, 가정생산성 변수인 가족의 응집성·적

응성을 놓고, 직무수행도, 직무만족도 및 시장임금률을 시장생산성 변수라 하여 각 변수간 관계를 동시적으로 분석한 결과(〈표 5〉),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 높을수록 기혼남성의 직무수행도가 높아졌으며, 역으로 기혼남성의 직무수행도가 낮아질수록,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 낮아졌다.

〈표 5〉 가족의 응집성·적응성과 직무수행도 방정식의 2SLS 추정치

종속변수 독립변수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직무수행도
직무수행도		
기혼남성의 연령	0.34(0.09) *	
막내자녀연령	0.13(0.67)	
가족유형	-0.27(0.01) *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1.08(0.03) **
기혼남성의 연령		2.39(0.02)*
막내자녀연령		0.27(1.69)
직장직위		-2.10(3.02)
근속년수		-7.59(1.73) *
INTERCEPT		0.12(0.03) **
R ²	48.96(11.22) *	251.95(42.32) **
	0.11	0.12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이는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 높을수록 가족원의 취업태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남성의 직장가정간의 역할갈등을 감소시킴으로써 직무수행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며(김수연·김득성, 1994), 이러한 연구결과는 Wilkenfield(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직장에서의 낮은 직무수행도는 직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피로의 생산이 가족생활과 활동의 공유를 방해함으로써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낮은 직무수행도가 가족원들간의 친밀감과 우애감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한 이숙현(1995)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반면, 가족의 응집성·적응성과 기혼남성의 직무만족도는 서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었다.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표 5〉),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은 막내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가족유형이 핵가족일수록 높아졌다. 이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핵가족일수록 가족원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활동이 많아지고, 정서적 유대가 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고정자(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특성상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가 긴밀할수록 기능적인 가족으로 작용하며,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 높을수록 가족원간 역할공유 성향이 강하며, 실직 등의 스트레스 상황하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혼남성의 직무수행도는 직장직위가 높을수록 낮아졌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기혼남성인 점을 고려할 때 직장직위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직장내 업무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일에 대한 경험이나 보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혼남성의 직무수행도가 높아졌다.

기혼남성의 직무만족도는 직장직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직장직위가 높아질수록 직업에 대한 보상(임금 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짧은 근무시간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제약의 고충에서 벗어나 다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장직위와 근무시간을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Osherson과 Dill(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가족의 응집성·적응성과 시장임금률의 동시적 분석결과(〈표 6〉),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은 기혼남성의 시장임금률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지만, 반대로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은 시장임금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기혼남성의 시장임금률 증가가 가정에서 이용가능한 재정자원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가정내의 재정적 문제가 감소되고 가족간의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월수입이 많을수

〈표 6〉 가족의 응집성·적응성과 임금률 방정식의 2SLS 추정치

독립변수 \ 종속변수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임금률의 로그
임금률의 로그	13.32(0.09) **	
기혼남성의 연령	-0.05(0.55)	
막내자녀연령	-0.83(0.04) *	
가족유형	-3.20(0.09) *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0.02(0.03)
기혼남성의 연령		0.11(0.02) *
직장직위		0.21(0.08) *
근속년수		0.001(0.0001) *
INTERCEPT	80.64(14.47) **	6.58(2.43) **
R ²	0.13	0.07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록, 저축액수가 많을수록 가족들의 결속력이 강해진다는 계산자·한정화(199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한, 시장임금률은 기혼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장직위가 높아질수록,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령, 직장직위,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일에 대한 경험이 증가하고, 직장에서의 수행능력이 높아지므로 더 높은 임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결과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가족체계의 내적자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의 역할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김수연·김득성, 1994)

3) 가족의 경제적 자원과 시장생산성 세가지 구성요소간의 동시적 관계분석

마지막으로 가족의 경제적 자원을 가정생산성 변수로 놓고, 직무수행도, 직무만족도 및 시장임금률을 시장생산성 변수로 한 동시적 분석결과(〈표 7〉), 기혼남성의 직무수행도는 가족의 경제적 자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반대로 가족의 경제

적 자원이 많아질수록 기혼남성의 직무수행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가족원의 목표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내 긴장과 갈등을 감소시켜서 가족원들에게 직업역할 수행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기혼남성의 직무수행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의 경제적 자원의 증가가 가족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장에서의 역할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김양희·박충선(199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가족의 경제적 자원과 직무만족도는 서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표 7〉),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취업주부가계일수록, 기혼남성의 직장직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 주로 가계소득에 의해 형성(김경자, 1998)되기 때문에 주부가 취업하는 경우 주부의 근로소득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기혼남성의 직장

직위가 높아지는 경우 임금이나 기타 보상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주부가계에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월평균 소득액과 저축률이 높다고 보고한 양정선(199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혼남성의 직무수행도는 직장직위와 근속년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직장직위가 낮을수록,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직무수행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장직위

가 높을수록 업무부담이 과중해져서 직무수행도가 낮아지며,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그 직업에 대한 경험이 증가하여 직무수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의 경제적 자원과 임금률의 동시적 분석결과(〈표 8〉),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기혼 남성의 시장임금률에 따라 변화한 반면,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기혼남성의 시장임금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족의 경제적 자원과 임금률 방정식의 2SLS 추정치

종속변수 독립변수	가족의 경제적 자원	임금률의 로그
임금률의 로그	315.24(20.55) ***	
기혼남성의 연령	11.63(15.53)	
자녀수	25.15(42.01)	
부인의 취업여부	100.71(12.42) ***	
직장직위	142.25(48.46) *	
가족의 경제적 자원		-0.001(0.0003)
기혼남성의 연령		0.03(0.007) ***
직장직위		0.26(0.05) ***
근속년수		0.001(0.0005)
INTERCEPT	343.33(55.70) **	4.12(0.22) ***
R ²	0.14	0.29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표 7〉 가족의 경제적 자원과 직무수행도 방정식의 2SLS 추정치

종속변수 독립변수	가족의 경제적 자원	직무수행도
직무수행도	2.77(2.64)	
기혼남성의 연령	0.07(4.19)	
자녀수	29.26(32.49)	
주부의 취업여부	100.06(22.53) ***	
직장직위	67.38(10.24) **	
가족의 경제적 자원		0.04(0.003) *
기혼남성의 연령		0.26(0.76)
막내자녀연령		-0.91(0.76)
직장직위		-3.28(0.80) *
근속년수		0.06(0.02) *
INTERCEPT	-44.43(13.98) *	55.84(16.99) *
R ²	0.25	0.06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이는 대부분의 여성이 가정일을, 대부분의 남성이 시장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별 분업구조 하에서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주로 기혼남성의 시장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혼남성의 시장임금률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장노동생활이 가계수입의 근원이 되므로 직장생활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양을 결정한다는 이현아(199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남성의 시장임금률은 주로 연령, 교육수준 등 기혼남성 본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시장임금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혼남성의 가정생산성(가사노동시간,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가족의 경제적 자원)과 시장생산성(직무수행도, 직무만족도, 임금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고 기혼남성의 가정생산성이 시장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시장생산성이 가정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밝히고자 대기업에 종사하는 기혼남성 37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가정생산성 변수인 가사노동시간을 놓고, 직무수행도, 직무만족도 및 시장임금률 등의 각 변수를 시장생산성 변수라 하여 각 변수간 관계를 동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사노동시간은 직무수행도, 직무만족도, 임금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남성의 시장임금률이 증가할수록 그들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사회적 규범에 의해 여성에게는 가정노동이, 남성에게는 시장노동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핵심역할로 간주되는 성별분업체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가정생산성 변수인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을 놓고 직무수행도, 직무만족도 및 시장임금률을 시장생산성 변수라 하여 각 변수간 관계를 동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의 응집성·적응성과 기혼남성의 직무수행도는 서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시장영역에서의 낮은 직무수행도는 직업스트레스와 피로를 증가시키고 가족생활과 활동의 공유를 방해함으로써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을 낮출 수 있으며, 반대로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 높을수록 가족원의 취업태도 향상, 역할갈등 감소 등을 통해 직무수행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혼남성의 시장임금률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서 이용가능한 재정자원이 증가하여 가정내의 재정적 문제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 높아졌다.

셋째, 가족의 경제적 자원을 가정생산성 변수로 놓고 직무수행도, 직무만족도 및 시장임금률을 시장생산성 변수로 한 동시적 분석결과, 기혼남성의 직무수행도는 가족의 경제적 자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반대로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많아질수록 기혼남성의 직무수행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원의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가족원의 목표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내 긴장과 갈등을 감소시켜서 가족원들에게 직업역할 수행의 동기를 부여하며, 직무수행도를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기혼남성의 시장임금률에 따라 변화한 반면,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기혼남성의 시장임금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여성이 가정일을, 대부분의 남성이 시장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별 분업구조하에서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주로 기혼남성의 시장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혼남성의 시장임금률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기혼남성과 그들 가정의 복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던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의 상호역동적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시장생산성은 가정생산성의 여러 가지 대응변수에 영향을 주고, 가정생산성 또한 시장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그들의 직무수

행도, 직무만족도, 시장임금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거나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 기혼남성의 시장임금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미 상식이고, 예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존세대와 가치관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20-40대의 기혼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제 data로 상식을 확인검증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간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이용가능한 자원의 최적분배와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의 재분배 방안을 고안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업이나 기타 이유 등으로 정체감을 상실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 및 동기 부여를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나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현재의 시장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실직이나 기타이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재취업의욕이나 동기를 높일 수 있으므로 총체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근본적으로 가족복지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열등한 지위와 임금격차로 오랜 논쟁의 대상인 취업주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모색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수적인 사회적 규범에 의한 노동분담은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주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이 가정역할과 시장역할 모두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적,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성들의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조사대상을 우리나라 100위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는 20-40세의 기혼남성들로 한정시켰으므로 확대해석에 무리가 있다.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의 관계는 그들이 속한 연령계층이나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의 표집 자체를 상이한 연령계층의 특성을 본격적으로 고려하여 세분화된 연령집단으로 나누거나 여러 직종이나 지역을 포함한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시켜서 연구모형을 정교화시키고 질문지법과 사례연구방법이 병행된다면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남성의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으므로, 기혼남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혼남성의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은 가족원의 역할분담과 지지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혼남성 뿐만 아니라 주부를 비롯한 다른 가족원의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이들간의 상호역동적인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계선자·한정화(1997).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59-77.
- 고정자(1994). "맞벌이 부부가족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97-116.
- 고정자(1998).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 김경자(1998). "재무적 안정도와 가계의 경제적 복지".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98 가을 심포지움.
- 김득성·김수연(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선 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김양호·김태현(1998).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81-94.
- 김양희·박충선(1992).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

- 지 30(3). 285-305.
- 박선옥(1996). 가계재정관리 유형에 따른 재정문제와 그 대처방안.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박주희(1993). 취업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성별분리 정도.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배미경 · 박선영 · 이승신(1997). "가계 비상금 소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213-223.
- 양정선(1992).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저축 및 투자행동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 · 이연숙 · 조희금 · 이현아(1998). "남편의 직종과 조직내 성역할문화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119-134.
- 이숙현(1995). "남성의 취업과 가족 상호작용: 대기업 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 271-289.
- 이정우 · 이미선(1995).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응집력 · 적응력 및 가사노동수행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71-83.
-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정순희 · 문숙재(1996). "가사노동과 시장노동간 관계에 대한 동시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10.
- 정혜정(1985).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61-84.
- 하현숙 · 김득성(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 · 신체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4). 309-326.
- 한경혜(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 가정복지 세미나. 서울특별시 · 한 국가족학 연구회. 39-80.
- 현정혜 · 박혜인(1992). "대구지역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일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4). 183-202.
- Bird, G.W., & Scruggs, M.(1984). "Determinants of Family Task Sharing: A Study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45-355.
- Blair, S.L., & Lichter, D.T.(1991). "Measuring the division on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12.
- Bolger, N.Delongis., Kessler, R.C., Wethington, E. (1989). "The contagion of Stress Across Multiple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1. 175-183.
- Brown, J.N.(1989). "Why do wages increase with tenure?". *American Economic Review*. 79(5). 971-991.
- Coverman(1985). "Gender, domestic labor time, and wage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623-637.
- Ferber, M.A., & Birnbaum, B.(1982). "The impact of mother's work on the family as an economic system". *Human Relations*. 35.
- Ferree, M.M.(1990). "Beyond Separate Spheres: Feminism and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66-884.
- Forginne, A.F., & Peeters, V.E.(1982). "Difference in Job Motivation and Satisfaction among Female and Male Manager". *Human Relations*. 35. 101-118.
- Hanna, Chang, Fan, & Bae.(1993). "Emergency fund level of households: Is household behavior rational?". *The Proceeding of ACCI*. 39. 215-223.
- Hersch, J.(1991). "The impact of nonmarket work on market wages". *American Economics Association Papers and Proceedings*. 81(2).
- Johnson, D.P. & R. Widdows.(1985). "Emergency Fund Levels of Household". *The Proceeding of ACCI*. 31. 235-241.
- Jones, F., & Fletcher, B.C.(1993). "An Employment Study of Occupational Stress Transmission on Working Couples". *Human Relations*. Vol. 46. No. 7.
- Judge, T.A., & Durham, C.C.(1998). "Dispositional

- effects on job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core evalu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1). 17-34.
- Kamo, Y.(1988).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 177-200.
- Liem, R., & Liem, J.H.(1988).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work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87-105.
- Mason, E.S.(1995). "Gender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2). 143-151.
- Osherson, S. & Dill, D.(1983). "Varying Work and Family Choices: Their Impact on Men's Work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39-351.
- Padgett, D.L.(1991). Families and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 update. Ph. D. Washington University.
- Voydanoff, P.(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0.
- Walker, K.E., & Woods, M.E.(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n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American Home Association*.
- Wilkenfield, L.D.(1988). An investigation of dual career wives' perceptions of task sharing from a family systems approach. New York Univ. Ph. D.